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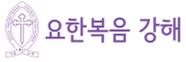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어리석은 질문 II

(요 8:21-30)

이종윤 원로목사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시고 찾아온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 최대의 기회요, 특권이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2. 신앙의 대상

(1) 옛적부터 계시 되신 분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요 8:25)

옛적부터 족장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계시된 메시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건만 알면서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그들의 처사에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며 어디서 무엇 하러 온 사람이냐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만 전하려고 세상에 왔다"라며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판단할 말이 많지만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판단할 것이 많다. 그러나 판단하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노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2)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요 8:29 상)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깨닫지 못하고 누가 예수를 보냈는지도 모르면서 주님에 대해 무조건 오해만 했습니다(요 8:27).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관계를 알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를 알지 못하게 하는 죄악의 장벽을 없애는 참 능력이 되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인하여 인생들이 비로소 주님을 믿게 되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오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더욱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도 당당하게 유대인들과 대결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3. 세 가지 질문

(1)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요 8:19)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문 아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도 모른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 속에는 유대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심령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2) 그가 자결하려는가(요 8:22)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은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은 자살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이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정해진 그 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또 한 길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잘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3) 내가 누구냐(요 8:25)

이 질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했으며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악에서 죽는 자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가서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누구냐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지 만약에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 그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당신이 누구냐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을 알아야 하며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2021년 10대 뉴스

1. 교회 개혁과 회복 등 교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다

우리 교회는 지난 5년간 진통의 시간들이 있었고,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 동안 이어져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은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먼저 2021년을 시작하면서 당회는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교회를 재창립 수

준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많은 성도들의 의견을 최대한 폭넓게 수렴하여 해당 분야에 관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당회가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회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인들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연초 공

동의회를 통과한 교회 연간 예산 및 당회 결의를 거친 매월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기로 하여 현재 서울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열람이 가능하다.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모임과 설명 중인 임상헌 장로(당회 서기)



NO	제목	등록일
12	서울교회 2021년 11월 결산보고	2021-12-15
11	서울교회 2021년 10월 결산보고	2021-11-11
10	서울교회 2021년 9월 결산보고	2021-10-06
9	서울교회 2021년 8월 결산보고	2021-09-08
8	서울교회 2021년 7월 결산보고	2021-08-19
7	서울교회 2021년 6월 결산보고	2021-07-14
6	서울교회 2021년 5월 결산보고	2021-06-20

홈페이지를 통한 재정보고

2. 모든 재정비리 의혹에서 벗어나다

2021년은 지금까지 박노철 목사 측에서 주장했던 모든 재정비리 의혹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벗어난 한 해였다.

박노철 목사 측은 2018년 6월, 오정수 장로가 원로목사는 물론 역대 사무국장, 재정 담당 직원 등과 공모해 백십억 원대의 횡령을 저질렀다며 원로목사와 오정수 장로 등 7명을 상대로 형사고발했고, 언론기관까지 거짓 여론몰이로 동원하였다.

그러나 수서 경찰서는 2019년 2월 8일(금)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송치 후 1년 7개월여의 수사 끝에 2020년 9월 14일(월) 피고발인 전원에 대하여 경찰 의견대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박노철 목사 측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또다시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21년 2월 18일(목), 서울중앙지검의 '혐의 없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위 항고 건 전부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 측은 이에 대하여 또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까지 하였으나 대검찰청은 박노철 목사 측 재정비리 고발 건 재항고를 2021년 5월 12일(수) 이것마저 이유 없다며 기각함으로써 오직 박노철 목사 측 지지 교인들의 결속과 동력유지를 위하여 3년 가까이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 제기로 끌어온 재정비리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3. 서울교회 분쟁 관련 모든 법적 소송이 깨끗이 마무리되다

2021년은 서울교회 분쟁 관련 모든 법적 소송이 깨끗이 취하, 마무리 된 해였다.

당회는 6월 9일(수) 총회로부터 우리 교회와 서울강남노회, 박노철 목사 측 등 세 당사자의 이행사항이 모두 포함된 합의 조정안을 제시받아 은퇴장로들은 물론 그동안 교회 분쟁 과정에 많은 수고를 담당했던 서바협, 사서함, 스테반회, 권사회 임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6월 20일(주일) 찬양예배 후에는 여러 성도들께도 위 제시받은 합의 조정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6월 21일(월), 총회에서 각 측 대표들이 참석하여 장시간의 대화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어 당회는 합의안대로 서울강남노회 전 노회장들에 대한 총회재판국 고소 건을 곧바로 취하하여 주었으나 서울강남노회는

기대와 달리 당회가 요청한 담임목사 청빙 허락 건과 장로 증원 건 처리를 지연시켰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총회는 7월 15일(목), 합의 당사자들을 다시 불러 최초 합의 대로의 이행을 다시 촉구하였고, 그 자리에서 정확한 이행 일정이 확정되어 박노철 목사는 7월 17일(토), 원로목사님 댁을 찾아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혀서 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 지난 5년의 분쟁기간 동안 저희가 하면 안 됐을 세상적인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정말 죄송하다. 용서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는 합의 안 중 '박노철 목사 측은 그동안의 교회 갈등에 대하여 총회 지도 아래 진정성 있는 유감을 표한다'라는 합의 안에 따른 것이었다.

이어서 7월 21일(수), 드디어 법원이나 검찰에 계류 중이던 서울교회와 박노철 목사 측의 여러 민·형사 사건들을 취하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이어온 모든 법적 소송이 깨끗이 마무리 된 것이다.

소송 취하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교회 안식년규정 관련 본안 사건은 서울교회가 승소한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어 한 국교계에 이정표를 제시하게 되었고, 또한 용역점거 손해배상 건도 그대로 확정되어 많은 분쟁 교회들에게 불법 용역을 동원한 대가가 얼마나 크고 쓰라린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 귀한 교훈으로 남기는 결과를 얻었다. 아울러 박노철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 출교 판결도 국가법원에서 더는 변경 가능성 없이 확정 되는 결과도 얻었다.



6월 21일(월) 총회 총회장실에서 열린 간담회



7월 17일(토) 이종윤 원로목사님 댁을 찾아 사죄하는 박노철 목사

4. 손달익 목사를 제3대 목사로 청빙하다

교회는 2021년 3월 초 '제3대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를 조직하고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오랜 교회 분쟁과 담임목사 부재 과정을 거친 교회 상황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효과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담임목사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청빙하되 충분한 검증 기간을 가질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미 본 교단 소속 타 교회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사역을 거쳐 충분한 목회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될만한 분으로서 서울교회 규정에 따라 처음 안식년을 갖는 시점 이전에 은퇴하게 될 연령대의 목사를 청빙하기로 하였다.

이후 당회는 성도들로부터 위 요건에 부합하는 담임목사 후보를 추천받았으며 추천된 목사들 중 최우선 순위로 선정된 손달익 현 담임목사에 대한 청빙을 결의한 후 5월 16일(주), 헌법 정치 제28조 3항에 따른 특별 제직회를 개최하여 당회가 추천한 손달익 목사를 제3대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최종 결정하여 곧바로 소속 서울강남노회에 위 청빙 건 허락을 청원하였다.

그러나 이런 저런 사유로 서울강남노회에서 담임목사 청빙 허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총회주관의 합의로 교회관련 법적분쟁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서울강남노회도 7월

30일(금) 당회가 청원한 담임목사 청빙 허락건을 허락함에 따라 손달익 목사를 서울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청빙되게 되었다.

이후 가을 정기노회에서 위임 청빙 허락까지 받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9월 5일(주), 손달익 담임목사의 위임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총 투표수 386표 중 헌법상 결의 요건인 2/3 이상인 369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지난 11월 21일(주), 위임예식까지 거행함으로 손달익 목사는 서울교회 제3대 위임목사로서 정식 시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손달익 목사의 위임예식을 거행하다

5. 제15대 안수집사, 제14대 권사 임직식을 거행하다

당회는 5월 정기당회에서 제15대 안수집사, 제14대 권사 후보 추천 명단을 확정하고 5월 16일(주)에 공고를 거친 후 5월 23일(주) 찬양예배 직후 서울교회 운영규정 제5조 3항에 따라 당회에서 추천된 안수집사, 권사 후

보들을 대상으로 공동의회가 개최되었고, 추천된 후보 모두 과반수 득표를 함에 따라 교단헌법에 따라 전원 피택집사와 피택권사로 선출되었고, 이후 교육일정에 따라 3개월간 임직에 필요한 훈련을 거쳐 11월 21일(주),

임직식을 거행하였다.

교회 회복을 위하여 할 일 많은 서울교회에 신실하신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5대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제15대 안수집사 제14대 권사 임직식

6. 제15대 장로 10명을 선출하다

2021년은 2015년 이후 6년 만에 장로를 선출한 해였다.

7월 30일(금), 총회주관의 합의에 따라 서울강남노회로부터 10명의 장로 증원 건이 허락되었고 코로나 확산세로 일자가 다소 늦춰지던 중 10월 24일(주일), 찬양예배 후 개최

된 제직회에서 제15대 장로 10명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20명을 선출하였고, 11월 7일(주) 찬양예배 후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감사하게도 피택 예정이었던 10명 전원이 1차 투표에서 선출되었다.

이들에 대하여 이미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회의 지도 아래 피택장로 교육이 시작되었고 노회훈련원에서의 위탁교육을 포함하여 앞으로 4개월 이상 훈련을 받고 내년 봄 노회 전 실시되는 노회 고시에 합격한 후 정식 장로로 임직하게 된다.

7.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다

교회가 회복됨에 따라 손달익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교회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3R-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다시 교회

로(Rebuild),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를 부제로 각 선정하여 서울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출발을 다시 시작하는 한 해였다.

지난 1월, 우리 교회는 강남구 교회와 구청 협의회를 통해 1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코로나19 검진과 확진자 치료

를 위해 수고하여 온 강남구 보건소 의사 간호사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지원하였다.
또한 부활절 성금요일 금식을 통해 드러진 현금 전액을 코로나19로 인한 생업 타격과 의료 수술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021 사명자대회의 사역 중에 '1인 1사랑 실천'을 펼쳐 교역자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며 시작하여 교회학교와 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진행하였다.
또한 추수 감사헌금을 코로나로 피해 입은 이웃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총회에 전달하여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교회에 후원되었고, 성탄 감사헌금은 지역사회와 이웃 등 세상을 향한 구제금으로 전액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8.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교회의 회복은 곧 말씀의 회복인 한 해였다.
2021년 흥해작전은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를 주제로 6월 6일(주) - 6월 25일(금)까지 진행되었고, 특히 특별새벽기도회는 손달익 목사의 설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 실황중계로, 온

라인 예배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연인원 11,083명이 대면 예배, 예배 실황중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였다.
2021년 사명자대회 역시 '서울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10월 10일(주)-11월 28일(주) 50일간 진행되었고, 특별새벽기도회는 손달익 담임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진

행되었으며 마침 위드코로나가 시작되어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보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받는 시간이었다.
각자의 처한 장소에서 기도드리는 '24시간 릴레이 기도'에도 연인원은 10,380명이 참석하였으며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한 인원은 연인원 3,089명이었다.



9.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나아가다

교회는 연초에 교회 회복과 개혁을 천명하고 2021년 교회 행동지침 중 두 번째를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로 결정한 바 있다.
믿음의 계대를 이루는 천국시민을 양성하

기 위한 시작점을 교회 분쟁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장학생 선발 및 교회학교 교육컨텐츠 제작 환경 조성 등으로 하였다.
또 그동안 교회의 어려움으로 몇몇 교육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교회가 정상

화됨에 따라 천국시민 양성이라는 교회 설립이념을 더 활발히 실천하기 위해 각 부서별 담당 전담 교역자를 청빙하여 그동안 교회 분쟁과 코로나19로 다소 침체되었던 교육부서 운영을 힘 있게 재개하였다.

10. 교적 정리로 교회의 내실화를 시작하다

당회는 지난 2016년 말 이후 장기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에 대하여 제적 또는 헌법 정치 제19조에 따른 실종교인 처분을 하고 있다.
물론 이들 중 언제라도 돌아와 복권을 신청하게 되면 헌법 정치 제20조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다시 교인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인 숫자를 자랑하거나 절차에 미숙하여 오랫동안 교적 정리를 하지 않아 허수 성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회 행정을 보다 효율

화하고 좀 더 치밀한 교구 관리를 위해 분쟁 과정에서 이탈한 교인들을 정리하면서 실제 출석교인만을 교적 상 교인으로 확정하여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 : 유은경 집사(편집부)



원로장로 추대를 받으며



70 평생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정수 은퇴장로

부족한 종인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뿐임을 고백합니다.

1.4후퇴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한으로의 피난을 결정하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걸 포기한 채 오로지 자유 민주주의를 찾아 남하하신 부모님의 결정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에게 철저한 신앙을 가르쳐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과 폐허 속에서도 저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말씀 중심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의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철저한 신앙으로 인해 일생 동안 주일예배를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선한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 삶의 큰 기쁨이며 감사였습니다.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향한 가치를 나누며 성도들과 더불어 서울교회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양육되는 모습을 보고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는 삶을 사는 것이 늘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득불 자랑하는 것은 저는 일찍이 37세의 나이에 장로로 부름을 받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교회와 사업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일 성수와 십일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생각했고 건축 헌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기쁨으로 바쳤습니다. 기도와 비전과 믿음이 하나 되어 서울교회의 건축을 목도하게 된 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짧지만은 않은 인생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시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감당할 만

한 시험이라 믿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항변하는 것을 부질없게 여겼습니다. 뇌출혈이라는 원치 않는 고통 속에서도 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모든 것들에 감사와 교회에 대한 걱정이었음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서울교회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흔들림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한 뿌리를 내린 서울교회는 모진 풍파와 태풍 속에서도 끝내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부실한 부분들이 깨갓이 떨어져 저 나가고 썩은 줄기들과 썩은 열매들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병상에 누워 죽기 전에 서울교회가 정상화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였더니 환란 중에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깨갓게 하여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 손달익 목사님을 예비해 주셨으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는 감사의 고백을, 허락하신 모든 것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시 16:3)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섬기며 서울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섬기며 즐거워하던 30년 전의 기쁨과 부흥의 축복이 서울교회에 다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의 헌신 없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며 신앙생활을 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 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서울교회의 새로운 초석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통해 펼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내 생이 끝나는 날까지 늘 잊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Soli Deo Gloria!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문환 은퇴장로

많이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혹여라도 마음에 불편함을 가졌거나 상처를 받은 분이 있으시면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회 시무 장로로 27년을 섬기는 동안 마지막 3년의 기간은 저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으며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성도님들에게도 큰 마음의 빛을 지고 지낸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

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이제 교회가 정상을 되찾아 온전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생각할 때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퇴장로서 뒤에서 조용히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성도님들의 사랑의 마음을 모아 원로장로로 추대하여 주신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또 성도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참으로 무익한 종입니다



서문석 은퇴장로

기록하신 주님 앞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참으로 무익한 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내어 놓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성도님들 뵈기도 두렵고 떨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부름을 받습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한 종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 구석진 곳에서 이름 없이 충성하겠습니다.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소외된 곳은 없는지 더 살피고 섬기겠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더 살피겠습니다.

2021년은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우리 교회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한해였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의 애끓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의 기적으로 고난의 역경을 종식시켜 주셨고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귀한 종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담임목사로, 위임목사로 세워주심도 기적이었습니다. 한동안 중단되었던 교회 일꾼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2022년 새로운 비전으로 더 크게 도약하고 한국 교회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더욱 힘있게 전진해 나갈 일만 남은 이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도님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2년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해결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 주님! 2022년에는 물러가게 하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불의가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가 깨끗이 물러가게 하소서
- 주님! 2022년에는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 주님! 2022년에는 해결되게 하소서
뒤틀린 것이 풀리고 닫힌 곳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 주님! 2022년에는 채워지게 하소서
사람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 주님! 2022년에는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우리 서울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일어나 새 일을 행하게 하소서
2022년 내내 이 기도의 응답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스데반회 회장 섬김을 마치며

지난 2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였습니다



김광태 집사
(2021 스테반회 회장)

전임 스테반 회장으로부터 스테반회를 위해 같이 일해 보자는 제의가 있었을 당시는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분쟁 기간이었으며, 그에 대한 제 대답은 당연한 수락이었으나 한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조건은 스테반 총무직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사유는 분쟁의 선봉에 스테반회가 서게 하는 일에 총무가 책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회는 물론 대부분 스테반 회원으로 구성된 서바협과 순수하고 정의로운 피로 뭉친 사서함이 분쟁에 너무도 잘 대처하고 있었으나 교회의 공식적인 기구이며 교회의 허리와 같은 스테반회가 당연히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스테반 임원의 일원으로 시작하여 2020년 스테반 회장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였습니다. 웨민홀 앞에서 잔반처리를 할 때는 많은 임·역원들이 동참하여 그 일손에 부족함이 없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월례회에 불러 축하를 해 줄 수 없을 상황에서 그 방법을 달리할 지혜를 주셨고, 각종 경조사에 참석하여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새벽 일찍 시작해야 하는 조문 시 운구 봉사는 최소 인원 6명이 필요하여 걱정이 많았었는데 임원 및 스테반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언제나 넉넉한 인원으로 봉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스테반 활동을 통해 많은 집사님들을 알게 되고 교제하며 가까워지면서 마음 한편에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쟁의 끝을 상상도 못했지만 기적처럼 분쟁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게 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 셔터가 올라갔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잔반처리 봉사는 자동적으로 스테반 회장으로서 당연한 봉사였던 주차 관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랜 기간 주차 봉사를 해왔던 집사님들과 자연적으로 출차 시 차량이 정체되는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고 이는 내년도 예배 시간 조정이라는 참신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특별히 감사의 표현을 못 했지만 이 지면을 통해서 함께 봉사해 주셨던 스테반 임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차량 봉사부 집사님, 개별적으로 조언을 해주신 집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데반 회장으로 있었던 2년 동안 서울교회 역사에 남을 큰 일들이 많았었고 이와 더불어 손달익 목사님의 위임, 안수 집사, 권사님의 임직, 피택장로의 선출의 과정을 보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느끼기에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쓰임을 받게 함으로 게으른 저를 충성된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의 작은 이익만을 보아온 안목을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넓혀주시고 자칫 허무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감사와 감사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김선영 권사
(2021 권사회 회장)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권사 회장 직분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태 신앙으로 일상생활처럼 예배당을 드나들던 나에게 교회 분쟁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서울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의 고질화된 금전적인 분쟁을 종식시키려 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쯤 일까를 생각하였고 분쟁 중이라 감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시작한 권사 회장 직분을 이제는 코로나라고 하는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속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매주 베델하우스에서 성도들의 주일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된장, 간장을 담그며 몸살도 앓았지만 기적같이 스스로 도망치는 무리들을 보며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탄성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분쟁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어 붙여다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

하신 우리 권사님들의 수많은 노고에 눈물로 감사드립니다.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단체방에 올라오는 공지 사항을 따라 각 처소에서 각자의 분량을 따라 수고의 땀을 흘려주시고 수요일마다 올라오는 기도문으로 교회를 위해, 병든 자를 위해,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므로 권사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부족하고 기도의 어머니로도 모자란 저와 함께 수고하며 땀흘린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봉사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됨을 만끽하는 즐거움 또한 제게는 큰 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기에 권사님들께 매우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는 신임 회장님과 임직하신 신임 권사님들과 더불어 약하고 병든 자를 위로하며 기도하는 권사회, 앞장서 교회를 섬기는 권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

교회학교 졸업식 / 항존직 은퇴식 장한 어머니 상 시상 / 성경통독 시상 / 특별제직회 오늘 교회학교 별 졸업 감사예배 찬양예배 시 : 항존직 은퇴식, 성경통독 시상, 장한 어머니 상 시상 찬양예배 후-특별제직회

2021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각 교회학교 졸업 감사예배가 교회학교 별로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줌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예배드린다. 일 년 동안 교육에 애쓰고 수고하신 교회학교 모든 교사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장한 어머니 상 시상과 성경통독 시상이 있다. 또한 주님 앞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

하다가 총회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에 정한 대로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집사, 권사들의 은퇴식과 원로장로 추대, 성경통독자 시상, 장한 어머니 상 시상이 찬양예배 시간에 있다. 찬양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다루는 특별제직회로 모인다.

2021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

- 은퇴장로 : 홍일성
- 은퇴집사 : 박명규 박충구 김성준
- 은퇴권사 : 김명심 박창희 오충례 이순영 이영옥 허현숙
- 장한 어머니 상

남재은 안미영 이정현 공나영 구진영 김민아 김의정 박지혜 손영희 양세정 오재영 이수정 이진영 이진희 정신아 조상희 조현정 한혜선 고민정 김은정 노애리 송명원 안재희 오세정 오숙영 유보영 이주영 이현정 하영인

• 성경통독자

- 1독 : (1교구) 김은숙1 김애리 송미령 허미옥 황금선 김연화 (2교구) 최형열 김찬진 김광성 송미정 이은희 최홍렬 오충례 이갑연 (3교구) 김정희 김인아 추석우 박정애 (4교구) 박민숙 박복순 이현정 최종희 (5교구) 심화숙 김혜식 김승록 전미경 김재용 김재령 이관모 양숙란 김혜연 박은영 김신영 황선희 (6교구) 홍한규 박수옥 (7교구) 박길자 제오복 (8교구) 채덕희 이봉선 (9교구) 유묘중 나가테 김미자 임명숙 김찬용 (10교구) 김경희 홍석현 이태승 정진영2 안분선 최숙희 김홍두 김예지8 (11교구) 박현영 장호림 김양숙 박정선 김남순 김명자 허숙서미영 이경희 이승준 (12교구) 조상희 장윤기 김선희

서상근 김예환 노문환 장정화 나미경 정희순 (13교구) 김지수12 김순진 김영자7 최원석 김소형 최옥경 김미성 손현수 박미영3 오만옥 전성희 (14교구) 안선희1 (15교구) 김혜란 백란희 (16교구) 임송자 최규초 백도환 석춘희 이선희 정금희 이정민 노재현 채교천 (유년부) 최무건 김하준 김하민 (초등부) 김보민 이시우 최무진 최주하 김하준

- 2독 : (1교구) 맹주은 (3교구) 이순례 (4교구) 김영희 (5교구) 홍혜련 김복희 박은영1 조현정 (7교구) 백승갑 (9교구) 김경숙 이연자 한상준 홍순복 (10교구) 조정옥 박광훈 (11교구) 이난희 (12교구) 이안순 김민아 노애리 유인정 최근자 (13교구) 주화인 (14교구) 정미연 박동희 (16교구) 강은경 (초등부) 조건우

- 3독 : (1교구) 이옥수 조순엽 (5교구) 홍혜란 (6교구) 김숙자 주경자 (8교구) 강애자 (9교구) 황재연 (11교구) 이옥희

- 4독 이상 : (9교구) 이강전-4독 (14교구) 김석봉-18독

- 필사 : (1교구) 류장열-영어 (4교구) 이영희1 (8교구) 이을동 (9교구) 전용순 이주영 (10교구) 김재연2 (11교구) 허숙 (13교구) 전성희

총 147명의 성도가 201독과 9회 필사에 참여하였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 100-034-868968
-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는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즐기세포 연구소 네이처셀이 기증한 크리스마스 마스크(KF94)를 2매씩 선물하였다.

네이처셀은 작년에도 유기농 매주를 우리 교회에 기증하여 권사회가 된장과 간장을 담귀 기금을 마련하여 한국교회 발전을 위하여 사용한 바 있다.





2022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송구영신예배가 2022년 1월 1일(토) 0시, 본당에서 드러진다.

12월 31일(금) 오후 11시 30분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0시 정각, 강대상에 촛불이 켜지면 손달의 담임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며 신년 감사헌금을 드린다. 성도들은 오후 11시 30분 소동이 되기 전 오서

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란다.

2022년 첫 주일인 1월 2일(주)은 신년감사예배로 주일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을 갖는다.

찬양예배 후에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 승인을 위해 공동의회로 모인다.

송구영신예배로 1월 1일(토) 새벽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체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 대상자들

심중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황수지(육사생도) 소준 백승규
장하람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심준규
허성강 옥준용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고등부 교사모집

2022년 고등부 교사로 섬겨주실 성도들을 모집한다.

입시와 학업에 찌든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바른 신앙과 바른 꿈을 심어주는 보람찬 고등부 교회학교 봉사에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린다.

- 모집 인원 : 3명

- 봉사 시간 : 주일 오전 8시 20분 - 10시 50분 (101호 웨민홀)

- 연락처 : 한상욱 집사(고등부 부장)

010-8007-1506

김예지 전도사(고등부담당)

010-2365-7664

동정

■ 떡 제공 : 백도환 집사 · 석춘희 권사 가정 (손자 세례 및 손녀 출생을 감사하며)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 임마누엘찬양대의 성탄절 칸타타 '사랑의 왕' 연주가 있었다.
사진 : 정승균 집사(편집부)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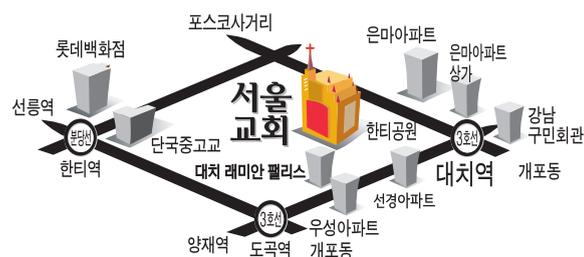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21년 서울교회 회복시켜 주신 은혜 감사하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소서.
2. 교회를 지키느라 수고한 모든 성도의 심신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 주시고, 회복과 축복을 소망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
3. 코로나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대한민국을 인도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